

광주 기업들, 'CES 2025' 서 해외진출 교두보 마련

지역 15개 기업 혁신기술 선봬 371건·5700만달러 수출 상담 8개사 14건 업무협약 등 체결 광주공동관에 6270여명 방문

광주시가 지역기업 15개사와 함께 참가한 세계 최대 전자·정보통신기술(ICT) 전시회인 'CES 2025'에서 371건, 57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를 거뒀다. 이 중에서도 ㈜인비즈, 이-솔테크, ㈜인디제이, ㈜우니온에이아이 등 8개사가 수출계약 체결 1건, 투자협약을 포함한 1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쾌거를 올렸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10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5'에 지역기업 15개사와 함께 참가해 '광주 공동관'과 '통합한국관 내 광주관' 등 전시공간 2곳을 동시 운영하며, 세계 시장에서 지역의 혁신기술을 뽐냈다.

'인공지능(AI)'을 주제로 한 'CES 2025'는 160여개국 4500개가 넘는 기관과 기업이 참여했다. AI가 다양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발견하고 탐구하는 등 AI를 포함한 미래산업 기술의 각축전이 벌어졌다.

전시기간 동안 광주관을 찾은 방문객은 6270명에 달했다. 지역 기업들은 각국의 바이어를 대상으로 371건, 5700만달러 규모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AI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광주시는 그동안 쌓아온 AI 신제품·기술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신제품·기술을 공유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됐다는 평가다.

특히 지역 참가기업 가운데 최고혁신상을 수상한 ㈜고스트페이스를 포함, 6개 업체가 혁신상을 수상하는 등 글로벌 무대에서 광주의 혁신기술을 인정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기업들의 해외판로 개척

과 수출 활성화 등의 성과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안보 분야(Human Security for All)에서 '다목적 모듈러 구조물'로 CES 혁신상을 수상한 이-솔테크 송중운 대표는 "올해 CES 참가를 위해 1년여간 열심히 준비했다"며 "CES혁신상 수상과 더불어 해외바이어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어 "특히 세계 최대 ICT 전시회 무대에서 우리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 상당한 자부심이 들었다"면서 "전시회 종료 후에도 바이어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좋은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전시회 종료 후에도 상당수의 기업들이 해외바이어와 제품공급, 업무협약체결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후 추가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CES에 3년째 참가했다. 광주 기업들의 참여도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광주 기업들의 실력과 노하우도 매년 축적되는 것은 물론 광주경제도 계속 성장하리라 생각한다"면서 "광주시와 기업들이 함께 지역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지역기업을 육성하는데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전남도, 설 대비 도축장 연장·안전성 검사 강화

전남동물위생시험소(이하 시험소)는 설을 맞아 늘어나는 도축물량 해소를 위해 도축장을 연장 운영하고, 유해한 오염 미생물과 식육 잔류물질 등에 대한 검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험소는 현재 도축장 개장 시간을 오전 5시로 앞당기고, 도축 종료 시간도 평소보다 늦춰 연장 운영 중이다. 설 연휴 전 주말과 임시공휴일을 포함한 명절 연휴 기간에도 도축장 요청에 따라 평소처럼 개장해 연휴 동안 축산물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도축량이 증가하는 만큼 도축장에서 생

산된 식육을 대상으로 대장균, 일반세균,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검사와 함께 항생제 등 유해 잔류물질에 대해 시행하던 축산물 안전성 검사도 적극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 미생물, 잔류물질이 권장 기준을 초과하면 즉시 해당 식육을 폐기하고, 해당 식육을 생산한 도축장에 대해서도 위생 감독을 강화한다. 위생관리 기준, 자체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점검해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개선 조치를 요구하고, 시중에 부정 축산물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오지현 기자



광주 지산학연 협의체 신년인사회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집 광주테크노파크 원장, 시의원, 입주기업 대표 등이 15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지산학연 협의체 신년인사회'에서 떡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지방하천 재해예방 특별교부세 70억 확보

전남도는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7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태풍과 집중호우로 하천 범람, 제방 유실 등 피해가 대형화하면서 재난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남도는 재해위험이 높은 지방하천 구간 중 정비가 시급한 곳을 선정해 정부에 사업의 시급성을 설명하고 국비예산 지원을 지속 요청했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나주 영산천과 만봉천 19억원, 신광천 12억원, 보성 북내천과 담양 대덕천 각각 10억원 등 총 5개 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확보한 예산을 1월 중 해당 시

군에 교부해 우기철 이전까지 시급한 구간 공사를 마무리하고, 사업 공정 관리와 지도·점검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정국 전남도 자연재난과장은 "최근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재산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우선 시급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비로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 안전시설 확충 등 재난 대비 기반시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2025년 본예산에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총 59개 지구 1143억원을 편성, 상반기에 60% 이상 집행해 자연재해 예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 잔결음

광양만권 첨단소재 산업허브 육성 경제성 등 고려 최종 후보지 선정

전남도는 지난 14일 동부청사에서 미래첨단소재 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박정환 전남도 경제부지사와 이차전지, 기능성소재, 수소산업 등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기관, 지자체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용역은 광양만권을 첨단소재 산업의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 전략과

구체적 입지 공급 방안 마련을 통해 국가산단 지정 후보지로 지정한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이날 용역 수행기관인 국토연구원은 미래첨단소재 기본구상, 입지 공급계획 등을 설명한 후 참석자들과 국가산단 지정에 관한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광양만권은 국내 최대 규모의 광양·여수 국가산단과 연계한 이차전지·기능성소재·수소산업 등 핵심소재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항만, 공항, KTX, 고속도로 등 산

업 인프라를 모두 갖추고 있어 첨단소재 산업단지 개발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광양만권의 적정 산업단지 후보지 선정은 여수·순천·광양 일원에 4개의 입지 후보지를 검토하고, 개발 용이성, 경제성, 환경성, 접근성,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해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박정환 부지사는 "전남은 이차전지, 첨단소재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절대적 경쟁력이 있다"며 "산업 여건 변화에 따른 광양만권에 미래첨단소재 산업이 유치되도록 국가산단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내고 세금 부담 덜어요"

일시 납부면 4.6% 공제 혜택

광주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를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6%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1월 중 연납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되고,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 16일부터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자동응답시스템(ARS 1899-3888)을 통해 신

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고,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거래은행 인터넷·모바일 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계좌이체는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주민세(개인분)·재산세·등록면허세에 대해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달부터 고지서 1장당 500원의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까지 함께 신청하면 1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자동차가 등록된 관할 자치구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노병하기자

광주시,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3배 '상승'

3억6000만원...전년비 321%↑ 답례품 확대·맞춤 홍보 효과

지난해 광주 고향사랑기부금 규모가 전년보다 3배 넘게 경증 된 것으로 나타났다. 답례품 확대와 맞춤형 홍보 전략 등의 효과라는 분석이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3억6000만원을 모금했다. 이는 2023년 1억1200만원보다 321% 증가한 것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을 크게 늘리고, 연말정산 시기에 맞춘 이벤트 등 맞춤형 홍보 전략

이 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4개에 불과했던 기존 답례품을 맛집·관광·체험상품 등 62개로 대폭 늘렸고, 그 결과 8월부터 4개월간 운영된 신규 답례품이 총 판매량의 40%를 차지했다.

실제 2024년도 판매 상위 5개 답례품을 보면 축산물세트(27.8%), 네이밍도네이션(14.4%), 수제떡갈비(7.7%), 대한민국 주류대상 수상 탁주세트(6.6%), 쌀(5.4%) 순이다.

여기에 '국회, 광주의 날' 등 찾아가는 현장 홍보로 광주 고향사랑기부 인지도를 끌어올린 데다 11월 연말정산 시기를 대비해 추진한 '광주 고향사랑의 퍼퓌링'이

벤트를 개최해 2주 동안 1억7000여만원

을 모금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박원원 자치행정과장은 "광주를마음의 고향으로 여기고 고향사랑 기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면서 "올해도 더 많은 분들이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답례품과 의미있는 사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올해 야구·축구·배구 등 스포츠 굿즈, 돌봄 서비스, 우수식품 기업 밀키트 상품 등 더욱 다양한 답례품을 구상하고 있다.

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되고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노병하기자